

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



Korea Institute of S&T
Evaluation and Planning

내용

- 1. 개요
- 2.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현황
- 3.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별 집행현황
- 4. 요약 및 정리

작 성

이현익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연구원 | hyoniklee@kistep.re.kr | 02-589-2207 유현지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연구원 | hyunji@kistep.re.kr | 02-589-2199

1. 개요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¹)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·분석하여 매년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를 발간
 - 국가R&D사업의 종합적인 조사·분석을 통해 각 중앙부처가 수행한 세부과제별 집행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,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
- 이번 호에서는 「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집행현황을 분석·정리
 - 2017년 35개 부·처·청·위원회가 집행한 568개 세부사업(19조 3,927억원), 61,280개 세부과제의 집행현황 중 주요 항목에 대해 요약·정리

2.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현황

- 2017년도에 35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은 19조 3.927억원
 - 최근 5년간('13~'17년) 국가R&D 집행규모는 연평균 3.5% 증가하였으며,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(5.1%)의 0.7배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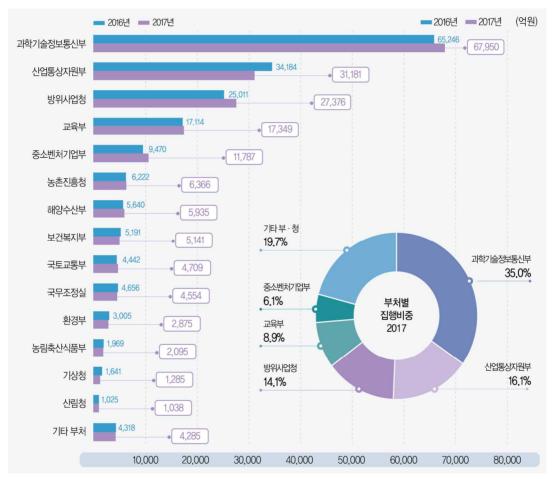


[그림 1]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변화 추이(2013년-2017년)

¹⁾ 부처명은 조사분석 '대상연도' 기준임. 이하 본문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함



- 주요 5개 부·청(과기정통부, 산업부, 방사청, 교육부, 중기부)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의 80.3%(15조 5,643억원) 차지
 - 과기정통부가 가장 높은 비중(35.0%, 6조 7,950억원)을 차지하였으며, 산업부(16.1%, 3조 1,181억원), 방사청(14.1%, 2조 7,376억원), 교육부(8.9%, 1조 7,349억원), 중기부 (6.1%, 1조 1,787억원) 순
 - 그 밖에 농진청(3.3%, 6,366억원), 해수부(3.1%, 5,935억원), 보건복지부(2.7%, 5.141억원) 순으로 집행



- 주1) 기타 부처는 경찰청, 고용노동부, 공정거래위원회, 국방부, 기획재정부, 문화재청, 문화체육관광부, 법무부, 법제처, 소방청, 새만금개발청, 식품의약품안전처, 여성가족부, 외교부, 원자력안전위원회, 인사혁신처, 통일부, 특허청, 해양경찰청, 행정안전부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총 21개 부·처·청·위원회의 합계임
- 주2) 「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시행계획(안)」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 시행에 따라 부처 분류에 '범부처'가 추가되었으나,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에서는 '범부처'를 부처 분류에서 삭제하고 '다부처 사업'에 해당하는 사업 및 과제를 따로 분류하여 통계를 산출함. 따라서 '기타 부처'에 범부처 금액이 포함되어있지 않음.
- 자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「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, 2018.8

[그림 2]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(2016년-2017년)



KISTEP 통계브리프

- 다부처 사업은 국가R&D 총 집행액의 6.9%(1조 3,417억원)를 차지하고 있으며, 각 다부처 사업은 세부사업, 내역사업, 세부과제 단위를 포함한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
 - 개별부처 중심의 R&D 수행으로 인해 부처 정책 간 연계 시너지가 부족하고 사업 간 유사 중복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부처 간 협업에 기반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
 -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,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과기정통부, 교육부, 농림부, 농진청, 산업부 등 17개 부·처·청·위원회가 공동으로 R&D 수행

표 1 다부처 사업 집행액(2017년)

(단위: 억원)

	다부처 사업명	집행규모
1	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운영	98.3
2	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	330.0
3	나노융합2020	202.4
4	개인기초연구	10,156.9
5	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	1,157.1
6	GoldenSeed프로젝트	360.1
7	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	493.8
8	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	20.4
9	고신뢰성다개체무인이동체통합운용체계구축	38.9
10	실감미디어를위한개방형조립식콘텐츠제작플랫폼개발	33.3
11	해양주권확보를위한원거리선박식별관리시스템구축	29.4
12	생활밀착형유해화학물질대체기술개발	18.6
13	신재생하이브리드이용미래에너지저장기술개발	48.5
14	국민위해인자대응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	28.0
15	저고도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감시기술개발및실증시험	43.1
16	지진단층조사R&D	35.8
17	국가전략프로젝트(미세먼지, 탄소자원화, 기상증강현실, 정밀의료)	322.2
	합계	13,416.8

3.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별 집행현황

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2)

- 2017년도 기초연구 집행액은 5조 4.252억원(40.0%)으로, 국정과제 목표치 달성
 - 2017년도 기초연구 집행비중은 40.0%(5조 4,252억원)로, 전년대비 1.1%p(2,893억원) 증가하였으며, 응용연구 22.3%(3조 229억원), 개발연구 37.7%(5조 1.222억원)임
 - 최근 5년간('13~'17년) 기초연구의 집행비중은 연평균 4.0% 증가
 - ※ 「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(2013~2017)」에 따라 정부 R&D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'12년 35.2%에서 '17년 40% 로 확대 추진, '17년 기초연구 비중 40.0%로 국정과제 목표치 달성



자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「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, 2018.8

[그림 3] 연구개발단계별 집행 비중 추이(2013년-20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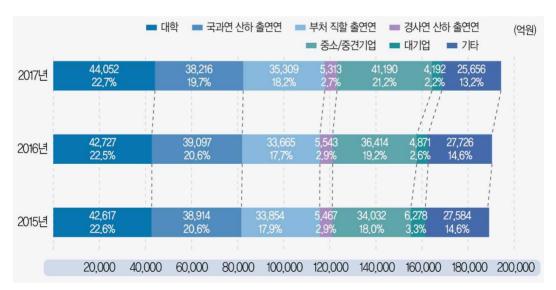
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

- 출연(연)(7조 8,838억원, 40.7%)의 집행 비중이 가장 높고, 다음으로 대학(4조 4,052억원, 22.7%). 중소기업(3조 1.686억원, 16.3%) 등의 순임
 - 출연(연)의 경우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출연금 비중을 확대한 결과, 집행 비중이 꾸준히 40% 이상으로 나타남
 - ※ 출연(연) 집행 비중(%): ('13년) 41.3 → ('15년) 41.4 → ('17년) 40.7

^{2) 「}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」에 따른 조사 대상과 방법 적용



- 벤처·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3조원을 돌파하였으며, 대기업의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
 - 정부R&D혁신방안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집중 및 대기업 직접지원 지속적 축소기조 유지에 따라 중소기업 R&D지원 3조원 시대를 맞이함
 - ※ 중소기업 집행액(억원): ('13년) 21,926(13.0%) → ('15년) 27,902(14.8%) → ('17년) 31,686(16.3%) 중견기업 집행액(억원): ('13년) 6,608(3.9%) → ('15년) 6,130(3.2%) → ('17년) 9,504(4.9%) 대기업 집행액(억원): ('13년) 8,608(5.1%) → ('15년) 6,278(3.3%) → ('17년) 4,192(2.2%)
 - 최근 3년간('15~'17년) 중견기업의 집행금액 및 과제 당 연구비도 꾸준한 상승 추세 ※ 중견기업의 과제 당 연구비(억원): ('15년) 8.5 → ('16년) 9.3→ ('17년) 12.9
- 출연(연)을 국과연 산하 출연(연)과 부처 직할 출연(연), 경제·인문사회계(이하 '경사연'으로도 칭함) 출연(연)으로 유형화³⁾해보면 국과연 산하 출연(연)의 집행액(3.8조원, 19.7%)이 가장 많음
 - 다음으로 부처 직할 출연(연) 3.5조원. 경제 · 인문사회계 출연(연)이 0.5조원의 순임
 - 전체 출연(연) 대비 국과연 산하 출연(연)의 집행 비중은 최근 3년간('15~'17년) 평균 49.4%를 유지
 - ※ 전체 출연(연) 대비 국과연 산하 출연(연) 집행 비중(%): ('15년) 49.7 → ('16년) 49.9 → ('17년) 48.5



주: '기타'는 국공립연구소(국립연구소,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 등), 정부부처, 기타(비영리법인, 연구조합, 협회 등)의 합계임 자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「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, 2018.8

[그림 4] 출연(연) 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(2015년-2017년)

⁻ 경제·인문사회계 출연(연):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를 포함한 한국개발연구원, 국토연구원 등의 28개 기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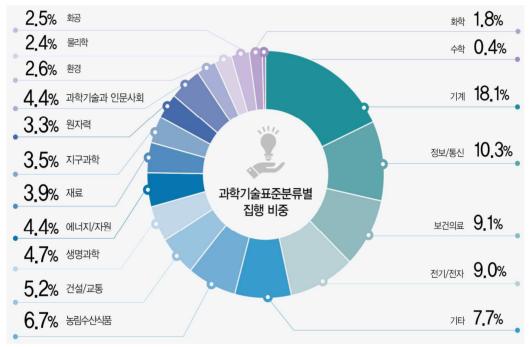
³⁾ 출연(연) 유형은 다음처럼 3가지로 구분함

⁻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(연):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포함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기계연구원 등 26개 기관

⁻ 부처 직할 출연(연): 특정연구기관(한국과학기술원 등)을 포함한 부처 산하 국방과학연구소,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5개 기관

기술분야별 집행현황4)

-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 18.1%(3조 2,655억원), 정보/통신 10.3%(1조 8,715억원), 보건의료 9.1%(1조 6.372억원), 전기/전자 9.0%(1조 6.326억원) 등의 순임
 - 전년대비 집행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⁵⁾ (33.5%, 1,986억원)이며, 그 다음으로 건설/교통(9.4%, 808억원), 수학(7.2%, 55억원) 등의 순임
 - ※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집행액(억원): ('15년) 4,799 → ('16년) 5,926 → ('17년) 7,912



주) 기타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 뇌과학, 인지/감성과학, 인문/사회학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기술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자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「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, 2018.8

[그림 5]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(2017년)

- 최근 5년간('13~'17년)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연평균 증가율 (18.2%)이 가장 높음
 - 그 다음으로 기계(8.9%), 보건의료(8.1%), 건설/교통(6.8%) 등의 순임
 - ※ 대학(원) 융합 교육·연구 역량 강화 정책에 따른 산학협력선도대학(LINC)육성, 사회수요맞춤형인재 양성사업 등의 예산 증가로 인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집행이 증가함

⁵⁾ 세부 중분류로 과학기술사, 과학기술철학, 과학기술정책/사회, 생명/의료윤리, 안전사회/재난관리, 기타 과학기술과인문사회가 해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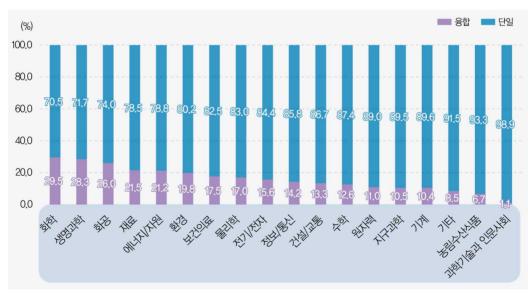
⁴⁾ 기술분류벌 집행현황 분석은 '17년도 전체 61,280개의 세부과제 중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(비밀 세부과제 포함) 분야의 53,995개의 세부과제(18조 831억원)가 분석대상임

- 과학기술 융·복합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, 융합 분야(6)의 집행액(7)은 전년대비 4.2%(1,038억원) 증가한 2조 5,609억원(14.2%)임
 - 「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」에 따라 전 산업 분야에 응용되는 IT 융합기술 개발 확대, 제조업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 장비 등의 고효율 및 성능향상을 위한 융합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증가
 - ※ 융합분야 세부과제의 집행비중(%): ('13년) 13.9 → ('15년) 13.0 → ('17년) 14.2



자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「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, 2018.8

[그림 6]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일 분야와 융합 분야 집행 추이(2013년-2017년)



자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「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, 2018.8

[그림 7]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일 분야와 융합 분야 세부과제 비중(2013년-2017년)

⁷⁾ 두 개 이상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해당하는 과제(단, '기타'는 하나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로 구분)만 융합 분야 과제로 분류하여 산출



⁶⁾ 융합기술은 "NT, BT, IT 등의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·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해서 미래 경제와 사회 ·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"(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, 2008)임

- 미래유망신기술(6T) 분야⁸⁾의 집행액은 11조 6,310억원으로 전년대비 3.7%(4,176억원) 증가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의 64.3%⁹⁾ 차지
 - 미래유망신기술(6T)별로는 BT 분야(3조 4,946억원, 19.3%)가 가장 많으며 IT 분야(3조 3,465억원, 18.5%), ET 분야(2조 2,924억원, 12.7%) 순임
 - ※ 전년대비 6T별 증감액은 ST(1,975억원)가 가장 많았으며 BT(1,605억원), NT(263억원), CT(259억원), ET(228억원), IT(△152억원) 순임
 - 최근 5년간('13~'17년) 6T 중 ST 분야(18.5%)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CT 분야 (10.3%), NT 분야(5.2%), BT 분야(5.0%) 등의 순임
 - ※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인 '우주기술 지립으로 우주강국실현'과 「우주개발 중장기 계획(14~40)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 영향으로 ST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짐



[그림 8] 미래유망신기술(6T)별 집행 추이(2013년-2017년)

⁹⁾ 분석대상 :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및 국방(비밀 세부과제 포함) 분야의 53,995개의 세부과제(18조 831억원)



⁸⁾ 미래유망신기술(6T): 정보기술(IT: Information Technology), 생명공학기술(BT: Bio Technology), 나노기술(NT: Nano Technology), 에너지환경기술(ET: Environmental Technology), 우주항공기술(ST: Space Technology), 문화기술(CT: Culture Technology)

- 국가전략기술¹⁰⁾ 분야의 집행액은 10조 9,224억원(60.4%)이며,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 (4.8조원, 26.6%)에 가장 많이 투자
 -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(4.8조원, 26.6%),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(3.1조원, 17.2%), 건강장수시대 구현(1.3조원, 7.4%) 순임
 -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무기개발 기술이 10.2%(1조 1,100억원)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다음으로 미래형 유인 항공기 기술 4.6%(5,040억원), 지식 기반 빅데이터 활용 기술 3.2%(3,525억원),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2.6%(2,845억원), 맞춤형 신약 개발 기술 2.5%(2,706억원)등의 순임



자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「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, 2018.8

[그림 9] 5대 분야별 국가전략기술 집행 추이(2015년-2017년)



자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「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, 2018.8

[그림 10]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집행액 상위 5개 기술 현황(2017년)

^{10) 「}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('13~'17)(안)」에서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와 120개 전략기술(30개 중점기술)로 구성



[참조] 국가전략기술 개요

- 국가전략기술은 「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('13~'17)(안)」에서 제시되었으며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와 120개 전략기술[30개 중점기술]로 구성
 - ※ 전략기술: 경제부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기술 중점기술: 전략기술 중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5년간 중점 투자가 필요한 기술

5대 분야	20개 추진과제		30개 중점 국가전략기술
	1–1, SW 인터넷 신산업 창출		지식정보보안 기술
			지식기반 빅테이터 활용 기술
4 505	1-2, C-P-N-D 기반 ICT 혁신 역량 강화		차세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기술(5G)
1, IT융합 신산업 창출	1–3. 문화 · 관광 콘텐츠 첨단화		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
LLB 02	1-4. 스마트 물류 · 교통 시스템 구축		지능형 인터렉티브 기술
	1 4, ==== === === 1 ======		첨단철도 기술
	1-5. 주력수출산업고도화		<u>첨단소재 기술(무기 · 유기 · 탄소 등)</u>
	이 4 미계에 보다이 되어 힘나 힘이		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 기술
	2-1.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 · 활용		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 기술
	2-2, 보건의료 글로벌 시장 선점		환경진화 자동차 기술
2. 미래성장	2-3. 농림축산고부가가치화		태양에너지 기술
동력확충	2~3, 등급복인고구기기시외		스마트 그리드 기술
	2-4, 우주 · 항공 · 국방의 성장동력화		<u>인체 영상기기 기술</u>
	2-5. 해양 · 수산의 미래산업화		<u>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</u>
	2 4.410 12 1 142		<u>서비스 로봇 기술(진단, 치료 분야 등)</u>
	3-1.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		<u>맞춤형신약개발 기술</u>
	3-2. 환경 보전 · 복원 시스템 고도화		유용 유전지원(genetic cesource) 이용 기술
3. 건강 장수	0 4 20 10 90 10 10 11		식량자원 보존 및 식품가치 창출 기술
시대 구현	3-3. 생활공간 편의성 향상		우주발사체 개발기술
	3-4. 국토 인프라선진화		고부가가치 선박기술
	- 11-2-12-1		이산화탄소포집 · 저장 · 이용 기술
	4-1. 난치성질병극복		오염 물질 제어 및 처리 기술(수질, 대기 등)
4. 건강 장수	4-2. 환자맞춤형의료서비스 실현		고효율 에너지 빌딩 기술
시대 구현	4 시 전시 옷심 이 교사이트 글린		미래첨단도시 건설 기술
	4-3. 저출산·고령화 대응 강화		<u>줄기세포 기술(분화 · 배양 · 치료)</u>
	도 4. 사기저 기여기의 이오기 피는!! 된 사람		건강관리서비스 기술
5. 걱정 없는	5-1.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		자연재해모니터링 · 예측 · 대응 기술
안전사회	5-2.사회적 재난 대응체계 확복		사회적 복합재난예측 · 대응 기술(원자력 환경 사고 등)
실현	5–3. 식량 안보와 식품 안전 향상		농축수산자원질병예방 · 대응 · 치료 기술
	이 이 극의 인포의 극품 인인 왕양		식품안전성 평가 · 향상 기술

주) 밑줄과 기울임체 관련 기술은 복수 추진과제에 활용되는 기술 자료: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. (2013). 「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('13~'17)(안)」



지역별 집행현황11)

- 지역별로는 지방¹²⁾의 집행비중이 36.0%(6조 9,432억원)로 가장 높고, 수도권(서울·경기· 인천)의 집행 비중이 35.1%(6조 7,626억원), 대전 28.9%(5조 5,630억원)의 순임
 - 지방 R&D 집행비중은 최근 5년간(' $13\sim$ '17년) 꾸준히 증가(연평균 6.0%)하는 반면, 수도권 R&D 집행비중은 감소(연평균 $\triangle 4.6\%$), 대전 R&D 집행비중은 유지되고 있음
 - ※ 지방은 「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」에 따른 지역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라 정부P&D 투자 증가율 상회



[그림 11] 지역별 집행 추이(2013년-2017년)

-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 3개 지역은 대전광역시(28.9%, 5조 5,630억원)와 서울특별시(19.2%, 3조 7.019억원), 경기도(13.7%, 2조 6.326억원)
 -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의 집행액은 경상남도(1조 2,832억원)가 가장 많으며 부산광역시(7,798억원), 전라북도(7,642억원)등의 순임
 - 전년대비 집행액은 경상남도(3,111억원, 32.0%), 경기도(2,586억원, 10.9%), 부산광역시 (1.226억원, 18.7%), 서울특별시(1.094억원, 3.0%) 순으로 많은 증가를 보임
- 기초자치단체¹³⁾ 수준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(27.9%, 54,108억원), 서울특별시 성북구 (2.7%, 5.273억원), 경상남도 사천시(2.5%, 4.823억원) 순으로 집행비중이 큼

^{13) 2017}년 신규 조사 항목으로, 해당 통계에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,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, 세종특별자치시를 별도로 포함한 229개로 기초자치단체 통계 산출



¹¹⁾ 연구수행주체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R&D집행규모 산정

¹²⁾ 지방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 등의 13개 광역자치단체

표 2

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별 집행액과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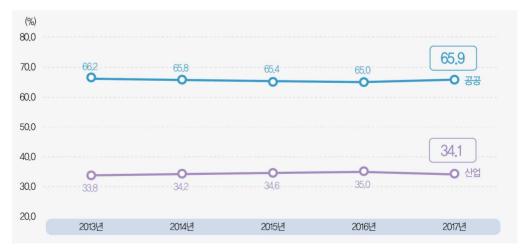
지역명	기초자치단체명	집행규모(억원)	비중(%)	비고
대전광역시	유성구	54,107.9	27.9	출연(연) 다수
서울특별시	성북구	5,273.0	2.7	고려대, 국민대, KIST 등
	사천시	4,823.5	2.5	한국항공우주산업 (4,649억원)
경기도	성남시	4,586.3	2.4	판교밸리 및 협회, 출연기관
서울특별시	강남구	4,357.1	2.2	KISTA, 삼성서울병원 등
전라북도	완주군	4,309.6	2.2	국립농업과학원 등 국공립연구원
세종특별시	세 종 특별자치시	4,234.1	2.2	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다수
서울특별시	관악구	3,864.3	2.0	서울대학교 등
 경상남도	창원시	3,692.4	1.9	국방과학연구소, 한국전기연구원 등
 경기도	과천시	3,540.0	1.8	방사청, 과기정통부 등

자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「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, 2018.8

적용분야별 집행현황

○ 공공분야(12조 7.764억원, 65.9%)가 산업분야(6조 6.163억원, 34.1%)보다 1.9배 많음

- 공공분야는 국방(2조 8,861억원, 22.6%)과 건강(1조 5,957억원, 12.5%), 지식의 진보 (비목적 연구)(1조 5,567억원, 12.2%) 등의 순임
- 산업분야는 농업, 임업 및 어업(1조 688억원, 16.2%), 제조업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)(9,795억원, 14.8%), 제조업(자동차 및 운송장비)(6,709억원, 10.1%)의 순임
 - ※ 정부R&D혁신방안에 따라 시장실패 보완 분야 및 중장기 성장동력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 방침이 반영된 결과 공공분야의 집행 증가



[그림 12] 적용분야별 집행 비중 추이(2013년-2017년)



연구비 규모별 집행현황14)

-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.2억원으로 전년대비 △8.7% 감소하였으며, 5천만원 미만의 소액
 과제 비중은 증가한 반면, 2억원 이상 대형과제 수행 비중 감소
 - 대학은 5천만원 미만의 세부과제 수행 비중이 큰 반면, 대기업, 중견기업 및 출연(연)은 2억원 이상의 세부과제의 수행 비중이 큼
 - ※ 연구비 규모에 따른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수 비중(%)
 - (5천만원 미만): 대학(47.5), 대기업(8.7), 중견기업(23.5), 중소기업(24.3), 출연(연)(18.8)
 - (2억원 이상): 대학(14.1), 대기업(69.5), 중견기업(77.5), 중소기업(36.2), 출연(연)(52.7)



자료)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「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 보고서」, 2018.8

[그림 13]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 수 추이(2013년-2017년)

- 개인기초연구, 인문사회기초연구 등의 사업에서 전년대비 5천만원 미만 세부과제 수 대폭 증가

표 3 5천만원 미만 상위 5개 사업의 5천만원 미만 과제 수(2016년-2017년)

2016년도		2017년도		
사업명	5천만원 미만 과제 수	사업명	5천만원 미만 과제 수	
이공학개인기초연구	1,543	개인기초연구(교육부)	5,390	
인문사회기초연구	3,657	인문사회기초연구	4,069	
개인연구지원	736	개인기초연구(미래부)	2,389	
산학연협력기술개발	685	산학연협력기술개발	1,956	
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	414	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	1,073	

¹⁴⁾ 과제 당 연구비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의 세부과제가 분석대상(2017년의 경우에는 61,280개)임



연구책임자 현황15)

- 분석대상 세부과제(53,376개)에서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는 전년대비 15.0%(5,297명) 증가한 40.546명으로 최근 5년간('13~'17년) 연평균 6.7% 증가
 - 총 연구책임자(40,546명) 중 남성 연구책임자 34,013명(83.9%), 여성 연구책임자 6,533명 (16.1%)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.2배 많음
 - 연구책임자의 여성 비중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·지원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따라 증가 추세*
 - ※ 최근 5년간('13~'17년) 연구책임자의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.5%, 여성 14.6%
 - *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(%) : ('13년) 12.1 → ('15년) 14.2 → ('17년) 16.1



[그림 14] 성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(2013년-2017년)

-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△12.2%(0.53억원) 감소한 3.78억원으로 남성 (4.11억원)이 여성(2.06억원)보다 2.0배 많음
 - 신진 연구자¹⁶⁾의 1인당 연구비는 1.23억원으로 전체 연구책임자 당 연구비(3.78억원)의 32.5% 수준, 성별로는 남성(1.34억원)이 여성(0.95억원)보다 1.4배 많음
 - 정부R&D혁신방안 2단계에 따른 신진연구자 지원 건수 확대에 의한 1인당 연구비 감소

¹⁶⁾ 신진 연구자는 만 40세 이하 연구책임자로 정의하여 1인당 연구비 산출



¹⁵⁾ 연구책임자 현황은 인문사회 분야와 국방(비밀 세부과제 포함)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의 세부과제가 분석대상(2017년의 경우에는 53,376개 15조 3,080억원)임

4. 요약정리

- 2017년 35개 부 처 청 위원회가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은 19조 3.927억원
 - 전체 세부과제 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액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둔화
 - ※ 세부과제 수: ('13년) 50,865개 → ('15년) 54,433개 → ('17년) 61,280개
 집행액: ('13년) 16조 9.139억원 → ('15년) 18조 8.747억원 → ('17년) 19조 3.927억원
- 2017년 기초연구 집행액은 5조 4.252억원(40.0%)으로. 국정과제 목표치 달성
 - 최근 5년간('13~'17년) 기초연구의 집행비중은 연평균 4.0% 증가
 - ※ 기초연구 집행비중(%): ('13년) 34.1 → ('15년) 38.4 → ('17년) 40.0
- 벤처·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3조원을 돌파하였으며, 대기업의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
 - 정부R&D혁신방안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집중 및 대기업 직접지원 지속적 축소기조 유지에 따라 중소기업 R&D지원 3조원 시대를 맞이함
 - ※ 중소기업 집행액(억원): ('13년) 21,926 → ('15년) 27,902 → ('17년) 31,686
-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계. 정보/통신. 보건의료. 전기/전자의 집행액 비중이 높은 특징
 -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 18.1%(3조 2,655억원), 정보/통신 10.3%(1조 8,715억원), 보건의료 9.1%(1조 6.372억원), 전기/전자 9.0%(1조 6.326억원) 등의 순임
 - 과학기술 융·복합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, 융합 분야의 집행액은 전년대비 4.2%(1,038억원) 증가한 2조 5,609억원(14.2%)임
-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.2억원으로 전년대비 △8.7% 감소
 - 5천만원 미만의 소액과제 비중은 증가한 반면, 2억원 이상 대형과제 수행 비중은 감소 ※ 과제 당 연구비(억원): ('13년) 3.3 → ('14년) 3.3 → ('15년) 3.5→ ('16년) 3.5→ ('17년) 3.2
- 분석대상 세부과제(53,376개)에서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는 전년대비 15.0%(5,297명) 증가한 40.546명으로 최근 5년간('13~'17년) 연평균 6.7% 증가
 - 연구책임자의 여성 비중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·지원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따라 증가 추세
 - ※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(%): ('13년) 12.1 → ('15년) 14.2 → ('17년) 16.1





KISTEP 통계브리프

발간 호수 : 2018년 제11호

발간물 명 :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

•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.

•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자 혹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06775 서울시 서초구 마방길 68(양재동)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혁신정보분석센터 Tel. 02 589 2199 Fax. 02 589 2191